

# 종말론과 크리스천의 환경 책무: 베드로후서 3:10-13을 중심으로

---

## 송영목

(고신대학교, 교수, 신약학)

- I. 들어가면서
- II. 베드로후서 3:10의 본문비평
- III. 베드로후서 3장의 담론분석
- IV. 베드로후서 3:10-13의 주해를 통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변화 사이의 상관성 탐구
- V. 베드로후서의 기록 목적과 세상의 변화에 비추어 본 크리스천의 환경에 대한 책무
- VI. 나오면서

## [초록]

환경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일로에 처해 있다. 이렇게 악화되는 현상은 성령론적 생태신학, 종말론적 생태신학, 생태여성신학, 그리고 생태정의와 같은 생태신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촉진시켜 왔다. 그런데 연구자의 종말론은 본인의 연구의 방법과 결론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둔 채, 본 연구자는 종말론과 그리스도인의 환경 책무의 관련성을 베드로후서 3:10-13을 주해함으로써 탐구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단계를 따라 진행된다. (1) 여섯 개의 이문들을 분석함으로써 베드로후서 3:10의 본문비평을 시도한다. (2) 베드로후서 3장의 담론분석을 시도한다. (3) 지구 소멸과 지구 재창조 사이의 관계성을 밝히기 위하여 베드로후서 3:10-13을 자세히 주해한다. 그리고 (4) 베드로후서의 기록 목적과 세상 갱신설의 빛 하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크리스천의 환경 책무가 무엇인지 탐구한다. 크리스천은 세상 갱신을 추진 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마땅히 참여해야 한다. 본 연구는 베드로후서의 종말론과 크리스천의 환경 책무를 연결하여 종합함으로써, 지역 교회는 물론 개별 크리스천이 환경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며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지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키워드:** 베드로후서 3장, 본문비평, 담론분석, 환경 위기, 종말론, 크리스천의 환경 책무

논문투고일 2021.01.26. / 심사완료일 2021.02.25. / 게재확정일 2021.03.02.

## 1. 들어가면서

악화일로에 있는 기후 위기(climate crisis)와 지구 가열(global heating)에 자본주의 탐욕과 인간의 편의주의가 결합하여 지구-생태살해(geo-biocide)를 계속 유발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역시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인 생태계 파괴나 기후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sup>1</sup> 이렇게 창조주께서 생태계에 부여하신 존재가치, 복원력, 그리고 아름다움이 훼손되는 차제에 크리스천의 청지기 사명에 대한 강조를 넘어, '성령론적 생태신학', '종말론적 생태신학', '에코-페미니즘', '생태 정의', 그리고 '생태 영성'과 같은 새로운 연구가 촉진되고 있다.<sup>2</sup> 그런데 환경과 생태 위기를 특정 상황과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탐구한다면, 연구자가 선호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주관주의로 흐르기 쉽다. 또한 연구자가 지지하는 종말론은 생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과 결론에 영향을 준다.

이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은 특정 이데올로기와 종말론을 전제하거나 출발점으로 삼기보다, 베드로후서 3장을 출발점으로 삼아 주석적으로 접근한다. 이 글의 목적은 베드로후서 3:10-13에 강조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미래 종말론의 관점에서 크리스천의 환경 윤리와 책무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 베드로후서 3:10의 6개 이문(異文)에 대한 본문비평, (2) 베드로후서 3장의 담론분석, (3) 베드로후서 3:10-13의 주해를 통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변화(불탐 혹은 갱신) 사이의 상관성 탐구, 그리고 (4) 베드로후서의 기록 목적과 세상의 변화에 비추어 본 크리스천의 환경에 대한 책무를 차례로 탐구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크리스천은 어떤 환경 책무를 지니고 있는지 논증할 것이다.

1 C. F. Mutel, "COVID-19: Dress Rehearsal for a Climate in Crisis,"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47/3 (2020), 40-41.

2 E. M. Conradie, "Contemporary Challenges to Christian Ecotheology: Some Reflections on the State of the Debate after Five Decades," *Journal of Theology for Southern Africa* 147 (2013), 108-20; M. P. de Wit, "Christ-Centred Ethical Behaviour and Ecological Crisis: What Resources do the Concepts of Order in Creation and Eschatological Hope offer?" *Koers* 78/1 (2013), 4.

## II. 베드로후서 3:10의 본문비평

베드로후서 3:10은 Nestle Aland 28(이하 NA28)에서 본문의 표기가 완전히 바뀌어 큰 논란이 되는 본문이다. 대한성서공회(KBS)는 세계연합성서공회(UBS)의 지부이므로, NA28처럼 Greek New Testament 5(이하 GNT5)가 베드로후서 3:10의 의미를 완전히 변경한 것은 앞으로 새로운 한글성경의 번역에도 영향을 미쳐 독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뒤에서 상세히 논증하겠지만, 이런 본문의 변화는 NA28이 NA27의 알렉산드리아 계열에 기반을 둔 채로 따랐던 절충주의 방식을 많이 포기한 결과이다.<sup>3</sup> GNT5는 10절의 본문비평 등급을 기존의 {D}에서 상향시켜 {C}로 매기는데, 이것은 GNT5의 편집자들 가운데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는 방증이다. 10절의 주요 이문은 6개인데, 하나씩 소개하고 평가할 차례이다.

### 1. οὐκ εὐρεθήσεται

10절에서 οὐκ εὐρεθήσεται(드러나지 않을 것이다)는 NA28이 새로 본문으로 채택한 표현이므로, 여기서 상세한 본문비평이 필요하다. AD 4세기 사히덕 콥트어 역본과 6세기 하르클레안(Harclean) 시리아어 역본을 따라 NA28이 부정어(οὐκ)를 본문에 첨가한 것은 내증과 외증의 합리적 절충주의를 따른 NA27로부터 수정한 24본문 중에서 가장 큰 변화이다. 그런데 10절에서 위에서 언급한 4-6세기의 두 고대 역본 그리고 The Moffatt Translation of the Bible(1953)을 제외한다면, 모든 헬라어 사본과 고대와 현대 역본들은 이 부정어를 생략한다. 그렇다면 NA28의 편집자들이 부정어를 추가한 이유를 추적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NA28이 본문 구축을 위해 따른 ‘일관성에 근거한 계보적 방법’(Coherence-Based Genealogical Method; 이하 CBGM)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CBGM에 따르면, 먼저 현존하는 사본의 90%와 교부문헌 중 검증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으고, 그 자료들을 일관성의 관점에 따라 분석하기

3 J. K. Elliott, "The Petrine Epistles in the 'Editio Critica Major'," *Novum Testamentum* 42 (2000), 334.

에, 모든 본문비평 방법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4</sup> 그렇다면 “10절의 부정어는 사본들의 어떤 계보적 일관성을 반영한 결과인가?”라는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10절의 경우, GNT5 비평장치는 부정어를 포함하는 고대의 두 역본을 포함하여 무려 43개의 헬라어 사본과 고대 역본의 목록을 제시하기 때문이다(참고. NA28은 총 34개). 위에서 언급한 CBGM의 특징을 인정한다면, 10절에서 부정어를 포함하는 두 역본은 나머지 사본 41개와 계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물론 사히덕 콥트어 역본과 하르클레안 시리아어 역본은 시간적 간격이 약 200년에 불과하며, 두 역본이 필사된 장소도 지리적으로도 가깝기에 서로 계보적 일관성과 친밀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두 역본 간의 이러한 계보적 일관성보다 훨씬 더 큰 경우는 10절에서 부정어를 생략하는  $\alpha$ (4세기), B(4세기), K(9세기), P(9세기), 1175(10세기), 1448(12세기)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헬라어 대문자 사본들 간의 계보적 응집력은 큰 시간적 간격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었다. 그러므로 상이한 언어인 콥트어 역본과 시리아어 역본 간의 계보적 응집력보다는 동일한 헬라어 사본들 간의 응집력을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따라서 NA28이 10절에서 계보적 일관성에 근거하여 원본을 추적하려는 시도는 CBGM의 특징을 두 역본에만 편향적으로 적용할 때만 가능하기에 설득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10절에서 부정어가 추가된 이유와 정당성은 CBGM이 전제하는 다음의 4가지 가정을 검토함으로써 추적하고 평가할 수 있다.<sup>5</sup> (1) 필사자는 저본(vorlage)을 신실하게 필사하기를 원했는데, 이 가정은 전승과정에서 생성된 많은 증거들의 유사성으로써 증명된다. (2) 필사자가 다른 이문들을 제시할 경우 그 이문들은 다른 자료에 온 것이지만, 필사자는 이문을 의도적으로 반복해

4 고영렬, “네스틀레 알란트(Nestle-Aland) 28판의 이론적 배경과 평가,” 「신약논단」 22/2 (2015), 254; T. Wasserman and P. J. Gurry, *A New Approach to Textual Criticism: An Introduction to the Coherence-Based Genealogical Method* (Atlanta: SBL Press, 2017), 77.

5 CBGM의 4가정은 김주한, “NA28판에 대한 비평적 고찰: 공동서신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80 (2016), 250-51과 고영렬, “네스틀레 알란트(Nestle-Aland) 28판의 이론적 배경과 평가,” 260-62에서 요약 인용함.

서 만들어 내지 않는다. (3) 필사자는 많은 자료들보다는 소수의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이 가정은 사본의 필사 과정에 나타난 최소한의 규칙에 따른 것이다. (4) 필사자가 사용한 자료들은 서로 느슨한 관계보다는 밀접한 관계로 나타나는데, 이 가정은 첫 번째 가정에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아주 다른 성격의 본문 변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4가정을 따른다면, 다음과 같이 추론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0절의 부정어는 헬라이어 저본에 포함되어 있었고(참고. 1번 가정), 사히디 콥트어 역본과 하르클레안 시리아어 역본의 필사자들은 부정어를 포함하는 서로 가까운 관계를 맺은 소수의 자료를 활용했다(참고. 3-4번 가정). 그렇다면 여기서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왜 이 두 역본은 그들이 참고한 소수의 헬라이어 대문자 사본들을 신실하게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역본과 헬라이어 사본들 사이에 계보적 응집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가?(참고. 1, 3, 4번 가정). 이 질문은 CBGM의 두 번째 가정으로써 해결되어야 하는데, 두 역본의 번역자들이 다른 자료 곧 부정어가 포함된 소수의 헬라이어 사본을 신실하게 필사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CBGM의 가정은 자체적으로 심각한 모순에 직면한다. 왜냐하면 부정어를 포함하는 AD 4세기 이전의 헬라이어 사본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부정어를 포함하지 않는 이문들의 필사자들은 어떤 종류의 응집력을 가진 소수의 자료들을 활용했는가? 4세기의 알렉산드리아계열로 분류되는  $\alpha$ 와 B의 필사자들로 범위를 좁혀서 CBGM의 4가정을 그들에게 적용한다면, 그 필사자들도 부정어가 포함되지 않은 소수의 계보적 일관성을 가진 사본들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CBGM의 4가정으로는 부정어를 포함하는 이문을 원본으로 단정할 수 없다.

여기서 덧붙일 수 있는 비평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οὐκ εὐρεθήσεται)가 ‘드러날 것이다’(εὐρεθήσεται)보다 더 길므로, 짧은 표현일수록 원본에 가까울 가능성이 더 크다는 NA 편집자들의 기존의 추론 방식에도 맞지 않다는 점이다.<sup>6</sup> NA28은 부정어가 포함된 표현이 더 길지만 이해하기 더 어려우므로 원본에 일치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부정어가 포함되면 더

6 고영렬, “네스틀레 알란트(Nestle-Aland) 28판의 이론적 배경과 평가,” 275.

어려운 독법이므로 원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가?”이다. 다시 말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가 더 어려운 독법인지 살펴야 한다. 10절에서 주의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 없게 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정어가 포함된 표현은 그리 어렵지 않다. 환언하면, 하늘과 물질이 떠나가고 풀어져서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면 더 이상 드러날 것이 없기 때문이다.<sup>7</sup> 그러나 NA28의 본문 확정의 원칙을 따른다면, 10절에서 부정어가 포함된 표현은 더 길므로 원본과 거리가 있으며, 더욱이 후대의 조화 덕분에 더 어렵지도 않다.<sup>8</sup>

## 2. κατακαήσεται

A, 048, 33 그리고 비잔틴 계열의 다수사본은 κατακαίω(불타다)의 미래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κατακαήσεται(불타게 될 것이다)로 표기한다. 이 표현을 지지하는 사본들은 A를 제외하면, 모두 서방본문이므로 사본의 지리적 분포도가 그리 넓지 않다. 이에 맞추어 KJV는 ‘shall be burned up’이라 번역한다. 잘 알려진 대로, 소문자로 표기된 다수사본의 주요 특징은 조화이다. 이 표현의 필사자들은 이런 특징을 따르고 나름대로 문맥을 고려하여,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것(στοιχεῖα καυσούμενα λυθήσεται)과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불타는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병행을 이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sup>9</sup>

NA28이 기초한 2013년의 ECM2(대비평본 2판)의 본문 구축 원리에 따르면, 비잔틴 계열의 본문은 헬라어 대문자로 기록된 오래된 이문들의 사본경향을 포함한다.<sup>10</sup> 환언하면,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본문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절충방

7 물론 한글 개역개정이 ‘물질’로 번역한 στοιχεῖα 그리고 ‘땅과 그 중의 모든 일’로 번역된 γῆ καὶ τὰ ἐν αὐτῇ ἔργα를 어떻게 번역하며 이해하는가에 따라 위에서 제기된 질문의 답과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8 K. Petzer, *Die Teks van die Nuwe Testament* (Pretoria: University van Pretoria, 1990), 269.

9 Petzer, *Die Teks van die Nuwe Testament*, 296.

10 NA28에 나타난 베드로후서의 다양한 변경(철자, 철자의 추가와 삭제, 구두점, 띄어쓰기, 약센트,

식을 따른 NA27의 외증을 찾는 방식을 NA28이 새롭게 적용한 결과는 비잔틴 계열의 본문의 가치가 격상된 것이다. 하지만 ECM2와 NA28의 편집자들은 *κατακαθήσεται*가 A와 048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소문자 사본들과 유의미한 계보적 일관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편집자들은 A와 048 그리고 33과 다수사본의 표현을 NA28의 본문으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3. *εὔρεθήσεται*

고대의 주요 대문자 사본들(M, B, K, P)과 소문자 사본(1175) 그리고 시리아어 역본 하나는 *εὔρισκω*의 미래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εὔρεθήσεται*(드러나게 될 것이다)로 표기한다. 이 표현은 NA27의 본문이었는데, 이를 반영하여 ESV는 ‘will be exposed’로, NIV는 ‘will be laid bare’로, 아프리카스 성경(2012)은 능동태 ‘sal verskyn’(will appear)로 번역한다. 절충주의를 따른 NT27은 이 표현이 본문비평 상 중요한 본문 유형인 알렉산드리아계열과 사본의 광범위한 지리적 분포도로부터 나온 사실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또한 심판의 때인 주의 날에 땅과 그 안의 모든 일들이 정화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드러나야 하므로, 이 표현은 문맥에도 적합하다(참고. 벤후 3:13; 히 4:13).<sup>11</sup>

### 4. *εὔρεθήσεται λυόμενα*

AD 3-4세기경의 p72는 *εὔρεθήσεται* 뒤에 현재 수동태 분사 중성 복수 주격 *λυόμενα*를 추가하여 “파괴된(풀어진) 상태로 드러날 것이다”라고 표기한다. 이 분사는 10절의 미래 수동태 직설법 동사 *λυθήσεται*(풀어질[파괴될] 것이다)와 11절의 *λυθήσονται*(풀어질[파괴될] 것이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나름대로 문맥을 고려하여 *εὔρεθήσεται*의 의미를 매끄럽게 다듬어 확장한 것이다. 하지만 10절에서 p72를 따른다면, 10-12절에 *λύω*에서 파생된 동사를

비평장치 등은 김주한, “NA28판에 대한 비평적 고찰: 공동서신을 중심으로,” 250, 270-78을 보라.

11 Petzer, *Die Teks van die Nuwe Testament*, 268-69.



4회나 반복하는 무리가 따른다.<sup>12</sup>

### 5. ἀφανισθήσονται

4세기의 C(03)는 ἀφανίζω(to disappear) 미래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 ἀφανισθήσονται(사라질 것이다)로 표기한다. 이와 유사하게, 아프리카스 성경(1999)은 'vergaan'(shall perish)이라 능동태형으로 강한 의미로 번역한다. 의미상, '사라질 것이다'는 주의 날에 물질이 불에 풀어질 것이라는 문맥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다른 이문들과 달리 C는 3인칭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 동사로 표기한다. 그러나 베드로는 복수 명사형 주어를 단수 동사로 표기하기도 한다(예. 벨후 1:2).

### 6. καὶ γῆ καὶ τὰ ἐν αὐτῇ ἔργα οὐχ εὐρεθήσεται를 생략

9-10세기의  $\Psi$ (044)와 고대 라틴어 역본들은 10절 하반부의 καὶ γῆ καὶ τὰ ἐν αὐτῇ ἔργα οὐχ εὐρεθήσεται를 생략하는데, 이유는 나름대로 문맥을 고려할 때 이 절(clause)은 10절 상반부의 진술과 의미가 중복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면 (οἱ οὐρανοὶ ῥοιζηδὸν παρελεύσονται, στοιχεῖα καυσούμενα λυθήσεται)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긴 표현을 생략하여 가장 짧게 표현한다고 해서 원본에 일치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이다. 왜냐하면  $\Psi$ 는 대문자 사본이지만 헬라어 소문자가 발명된 이후 시대의 늦은 사본이며,  $\Psi$  이외에는 어떤 사본도 이 긴 표현을 생략하지 않기 때문이다.

### 7. 소결론

10절은 본문비평 상 크게 6가지 이문으로 분류된다.<sup>13</sup>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12 B.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Testament* (Second Edition: New York: UBS, 2001), 636.

13 벨후 3:10의 다양한 이문에 대한 논의는 G. van den Heever, "In Purifying Fire: World View and 2 Peter 3:10," *Neotestamentica* 27/1 (1993), 108을 보라.

모든 이문은 나름대로 문맥을 고려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본문비평의 논의를 좁힌다면, 이슈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는 부정어의 유무 문제이다. 둘째는 ‘드러날 것이다’와 ‘불탈 것이다’ 중에서 어느 것이 원본에 일치하는가이다.<sup>14</sup> 이 두 문제는 베드로후서 3장의 담론분석(discourse analysis)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글에서 본문비평 다음으로 수행하게 될 담론분석은 문맥과 베드로후서의 메시지와 신학이라는 내적 증거를 밝히는 작업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 III. 베드로후서 3장의 담론분석

여기서 활용하는 담론분석의 순서는 (1) 베드로후서 3장을 가장 작은 하나의 사고 단위(thought unit)인 콜론(colon)을 따라 다시 배열하고, (2) 2회 이상 반복된 단어인 수평적 표지(marker)와 수직적 표지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시하고, (3) 베드로후서 3장의 특정 부분에만 등장하는 수평적 표지를 중심으로 콜론을 묶고, (4) 콜론의 묶음마다 주제(caption)를 달며, (5) 수평적 표지와 수직적 표지를 설명한 후 종합적 메시지를 밝히고, 마지막으로 (6) 콜론과 절과 콜론 묶음의 주제와 관련성을 도표로 요약한 후 설명한다.<sup>15</sup> 이런 6단계를 거친 담론분석은 아래와 같다.

#### A: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

1(1절) Ταύτην ἤδη, ἀγαπητοί, δευτέραν ὑμῖν γράφω ἐπιστολήν,

2 ἐν αἰς διεγείρω ὑμῶν ἐν ὑπομνήσει τὴν εἰλικρινῆ διάνοιαν

3(2절) μνησθῆναι τῶν προειρημένων ῥημάτων ὑπὸ τῶν ἀγίων προφητῶν καὶ τῆς τῶν ἀποστόλων ὑμῶν ἐντολῆς τοῦ κυρίου καὶ σωτῆρος,

4(3절) τοῦτο πρῶτον γινώσκοντες

14 ‘불탈 것이다’ 앞에 부정어가 첨가된 사본이 없는 점도 앞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이다.

15 이 글에서 사용된 담론분석의 방법론은 J. P. Louw, “Discourse Analysis and the Greek New Testament,” *Bible Translator* 24 (1973), 101-118을 참고하라.

- 5 ὅτι ἐλεύσονται ἐπ’ ἐσχάτων τῶν **ἡμερῶν** ἐν ἐμπαιγμονῇ ἐμπαίχεται  
 6 κατὰ τὰς **ιδίας** ἐπιθυμίας αὐτῶν πορευόμενοι  
 7(4절) καὶ λέγοντες· ποῦ ἐστὶν ἡ **ἐπαγγελία** τῆς παρουσίας αὐτοῦ;  
 8 ἀφ’ **ἧς**<sup>16</sup> γὰρ οἱ πατέρες ἐκοιμήθησαν,  
 9 πάντα οὕτως διαμένει ἀπ’ ἀρχῆς κτίσεως.

**B: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천지가 물로 멸망당한 후 멸망의 날까지 보존됨**

- 10(5절) Λανθάνει γὰρ αὐτοὺς τοῦτο θέλοντας  
 11 ὅτι οὐρανοὶ ἦσαν ἔκπαλαι  
 12 καὶ γῆ ἐξ ὕδατος καὶ δι’ ὕδατος συνεστῶσα τῷ τοῦ θεοῦ λόγῳ,  
 13(6절) δι’ ὃν ὁ τότε κόσμος ὕδατι κατακλυσθεὶς ἀπώλετο.  
 14(7절) οἱ δὲ νῦν οὐρανοὶ καὶ ἡ γῆ τῷ αὐτῷ λόγῳ τεθησαυρισμένοι εἰσὶν πυρί  
 15 τηρούμενοι εἰς **ἡμέραν** κρίσεως καὶ ἀπωλείας τῶν ἀσεβῶν ἀνθρώπων.

**C: 하루가 천 년 같이 이루어질 주님의 약속**

- 16(8절) Ἐν δὲ τοῦτο μὴ λανθανέτω ὑμᾶς, ἀγαπητοί,  
 17 ὅτι μία ἡμέρα παρὰ κυρίῳ ὡς χιλία ἔτη καὶ χιλία ἔτη ὡς ἡμέρα μία.  
 18(9절) οὐ βραδύνει κύριος τῆς ἐπαγγελίας,  
 19 ὡς τινες βραδύτητα ἠγοῦνται,  
 20 ἀλλὰ μακροθυμεῖ εἰς ὑμᾶς,  
 21 μὴ βουλόμενός τινος ἀπολέσθαι  
 22 ἀλλὰ πάντας εἰς μετάνοιαν χωρήσαι.

**D: 주님의 날에 천지의 물질이 풀어져 신천지가 될 것이므로 거룩하라**

- 23(10절) Ἦξει δὲ ἡμέρα κυρίου ὡς κλέπτῃς,  
 24 ἐν **ᾗ** οἱ οὐρανοὶ ροιζήδον παρελεύσονται,

16 P. H. Davids, *II Peter and Jude: An Handbook on the Greek Text*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1), 95.

- 25 στοιχεῖα δὲ καυσούμενα λυθήσεται
- 26 καὶ γῆ καὶ τὰ ἐν αὐτῇ ἔργα (οὐκ) εὐρεθήσεται.
- 27(11절) Τούτων οὕτως πάντων λυσομένων
- 28 ποταποὺς δεῖ ὑπάρχειν ὑμᾶς
- 29 ἐν ἀγίαις ἀναστροφαῖς καὶ εὐσεβείαις, (12절) προσδοκῶντας καὶ σπεύδοντας  
 τὴν παρουσίαν τῆς τοῦ θεοῦ ἡμέρας
- 30 δι' ἣν οὐρανοὶ πυρούμενοι λυθήσονται
- 31 καὶ στοιχεῖα καυσούμενα τήκεται.
- 32(13절) καινοὺς δὲ οὐρανοὺς καὶ γῆν καινὴν κατὰ τὸ ἐπάγγελμα αὐτοῦ προσδοκῶμεν,
- 33 ἐν οἷς δικαιοσύνη κατοικεῖ.

### E: 주님 앞에 점과 흠 없이 나타나도록 힘써라

- 34(14절) Διό, ἀγαπητοί, ταῦτα προσδοκῶντες
- 35 ~~πιστεύετε~~ ἄσπιλοι καὶ ἀμάμητοι αὐτῶ εὐρεθῆναι ἐν εἰρήνῃ
- 36(15절) καὶ τὴν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μακροθυμίαν σωτηρίαν ἡγεῖσθε,
- 37 καθὼς καὶ ὁ ἀγαπητός ἡμῶν ἀδελφός Παῦλος κατὰ τὴν δοθεῖσαν αὐτῷ σοφίαν
- 38 ἔγραψεν ὑμῖν,
- 39(16절) ὡς καὶ ἐν πάσαις ταῖς ἐπιστολαῖς λαλῶν ἐν αὐταῖς περὶ τούτων,
- 40 ἐν αἷς ἐστιν δυσνόητά τινα,
- 41 ἃ οἱ ἀμαθεῖς καὶ ἀστήρικτοι στρεβλώσουσιν
- 42 ὡς καὶ τὰς λοιπὰς γραφὰς πρὸς τὴν ιδίαν αὐτῶν ἀπάλειαν.
- 43(17절) ὑμεῖς οὖν, ἀγαπητοί, προγινώσκοντες φυλάσσεσθε,
- 44 ἵνα μὴ τῇ τῶν ἀθέσμων πλάνῃ συναπαχθέντες
- 45 ἐκπέσητε τοῦ ιδίου στηριγμοῦ,
- 46(18절) αὔξανετε δὲ ἐν χάριτι καὶ γνώσει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καὶ σωτῆρο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 47 αὐτῶ ἢ δόξα καὶ νῦν καὶ εἰς ἡμέραν αἰῶνος.

총 18절로 구성된 베드로후서 3장은 콜론 47개로 구성된다. 수평적 표지는 총 10개이다. *λυθήσονται*(풀어지다, 25, 27, 30; 3회), *ὑδατος*(물, 12[x2], 13; 3회), *στοιχεῖα*(물질, 25, 31; 2회),<sup>17</sup> *σπουδάσατε*(힘쓰다, 29, 35; 2회), *εὐρεθήσεται*(나타나다, 26, 35; 2회), *χίλια*(1,000, 17[x2]; 2회), *μία*(1, 17[x2]; 2회), *ἔτη*(년, 17[x2], 2회), *ἀπολέσθαι*(멸망하다, 13, 21; 2회), *καινὴν*(새로운, 32[x2]; 2회). 이상의 수평적 표지를 종합하면 베드로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물에서 분리된 (세상이) 물로써 멸망했듯이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결국) 물질이 풀어질 것이고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므로, 크리스천은 멸망당하지 않고 (새 세상에서 주님 앞에 점과 흠 없이) 나타나도록 힘써야 한다.

수직적 표지는 총 15개이다. *κυρίου/σωτήρος/Ἰησοῦ/Χριστοῦ*(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3[x2], 7, 17, 18, 23, 35, 36, 46[x2], 47; 11회), *ἡμέρα*(날, 5, 8, 15, 17[x2], 23, 24, 29, 47; 9회), *οὐρανοὶ*(하늘, 11, 14, 24, 30, 32; 5회), *γῆ*(땅, 12, 14, 26[x2], 32; 5회), *ἀγαπητοί*(사랑하는, 1, 34, 37, 43; 4회), *λόγῳ/ῥημάτων*(말씀, 3, 12, 14; 3회), *ἐπιστολὴν*(편지, 1, 2, 39[x2]; 4회), *θεοῦ*(하나님, 12, 29, 32; 3회), *ἰδίου*(자신의, 6, 42, 45; 3회), *παρουσία*(강림, 7, 29; 2회), *ἐπαγγελίας*(약속, 7, 18, 32; 3회), *πυρούμενοι*(불타다, 14, 30; 2회), *ἀπώλειαν*(멸망, 15, 42; 2회), *καυσούμενα*(불타다, 25, 31; 2회), *ἀγίαις*(거룩; 3, 29; 2회). 이상의 수직적 표지를 종합하면 베드로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편지를 받은 사랑하는 이들은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대로 강림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간수된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떠나갈 것을 알아야 하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

17 10절에서 *στοιχεῖα*가 지구를 구성하는 땅, 공기, 불, 물과 같은 물질을 가리키는 이유는 7절의 하늘과 땅은 10절의 하늘과 물질에 상응하고, 12절에서 지구의 모든 구성 물질은 하늘과 대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을 포함하는 물질(*στοιχεῖα*)은 초자연적 불에 의해 태워질 것이다. J. B. Green, *Jude & 2 Peter* (BECNT; Grand Rapids: Baker, 2008), 330; E. A. Johnson, *Semantic and Structural Analysis of 2 Peter* (Dallas: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1988), 102.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평적 표지들을 종합한 메시지와 수직적 표지들의 종합적 진술은 거의 일치한다. 이 두 메시지를 종합한 베드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세상이 멸망을 당하고 불타서 풀어져 다 드러날 것이므로, 성도는 새로운 세상에 나타나도록 거룩히 살아야 한다. 이상의 논의는 아래의 도표로 요약된다.

콜론	절	주제	관계
1-9	1-4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	권면의 동기
10-15	5-7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천지가 물로 멸망당한 후 멸망의 날까지 보존됨	권면의 근거 1
16-22	8-9	하루가 천 년 같이 이루어질 주님의 약속	권면의 근거 2
23-33	10-13	주님의 날에 천지의 물질이 풀어져 신천신지가 될 것이므로 거룩하라	권면의 내용 1
34-47	14-18	주님 앞에 점과 흠 없이 나타나도록 힘써라	권면의 내용 2

위의 담론분석을 요약하면, 베드로후서 3장은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의 강림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는 권면의 동기를 밝힘으로써 시작한다. 그 후 베드로는 세상이 장차 멸망당하기 위해서 보존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그 멸망은 진행될 것이라는 두 가지 근거를 언급한다. 베드로는 실제 권면을 두 가지로 전달하며 서신을 마무리하는데, 신천신지에서 주님 앞에 점과 흠이 없도록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다.

#### IV. 베드로후서 3:10-13의 주해를 통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변화 사이의 상관성 탐구

베드로후서 3:10의 본문비평과 베드로후서 3장의 담론분석은 크게 두 가지

주제와 결론으로 나뉜다. 하나는 세상의 불탐 즉 소멸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갱신 곧 새 창조이다. 이제 베드로후서 3:10-13의 주해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변화의 관련성을 밝힐 차례이다. 여기서 ‘세상의 변화’라고 표현한 이유는 세상이 불타서 없어지거나 세상이 갱신되는 것(참고. 행 3:21) 둘 다 ‘변화’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불탐과 소멸 그리고 세상의 갱신을 3:10-13의 절별 주해와 구약과 신약의 상호텍스트(이하 간본문)와 비교하며 탐구할 차례이다.<sup>18</sup>

## 1. 세상의 불탐과 소멸

예수님의 재림 시에 온 세상이 불타 사라질 것이라는 논지는 10-13절의 주해로 증명이 될 수 있는지 절별 주해로써 평가해야 한다.

### (1) 10절

10절d에서 다수사본을 따르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불타게 될 것이다(κατακαήσεται)”이다. 그리고 C(03)를 따르면 ‘사라지게 될 것이다’(ἀφανισθήσονται)라는 뜻이다. 여기서 ‘일들’(ἔργα)은 도덕적 의미로 사람이 행한 모든 행위를 가리킬 수 있다. 그런데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땅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더 넓게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sup>19</sup>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과 사람이 행한 모든 일들이 불타버릴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참고. 고전 3:13-14). 왜냐하면 재판관이 피고를 심문하듯이, 재림의 예수님은 사람의 ‘드러난 행위들’을 따라 심판하시기 때문이다(참고 14절; 막 4:22; 13:34; 고전 3:13; 엡 5:13).<sup>20</sup>

18 이 글 II에서 수행한 벵후 3:10의 본문비평 작업이 사본 상의 증거라는 외증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문맥과 베드로의 논증에 나타난 메시지를 밝히는 절 별 주해는 내증을 확인한다. 내증은 앞에서 언급한 CBGM에도 중요하다.

19 E. Johnson, *A Semantic and Structural Analysis* (Dallas: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1988), 103.

20 D. Wenham, “Being ‘found’ on the Last Day: New Light on 2 Peter 3:10 and 2 Corinthians 5:3,” *New Testament Studies* 33/3 (1987), 477; J. H. Neyrey, *Jude* (Anchor Bib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244; Green, *Jude & 2 Peter*, 330.

여기서 소문자 다수사본을 따른다면, 10절과 12절은 그레코-로마 세계의 철학 중 스토아학파의 대화재(ἐκπύρωσις) 개념을 반영하는가 중요한 질문이다. 베드로후서 3:5-12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결국 불타서 파멸될 것이라는 스토아철학의 주기적인 불타이라는 개념과 이사야 24:28과 에스겔 38:18-23과 같은 구약의 영향을 두루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sup>21</sup> 스토아학파의 대화재 이론의 빛에서 베드로후서 3:13의 간본문인 이사야 65-66장 그리고 계시록 6:12-14와 21:1을 이해한다면, 기존 존재의 갱신과 변형이 아니라 옛 세상과 새 세상 사이의 ‘불연속적 단절’을 통하여 더 나은 세상이 생성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베드로는 스토아철학의 영향을 반영하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베드로후서의 독자 가운데 특히 이방인 출신 크리스천은 그 당시 널리 알려진 대화재 개념에 익숙했을 것이다.<sup>22</sup> 하지만 베드로가 언급한 의가 거하는 신천지(13절)의 단회적 도래는 스토아철학의 순환적이며 주기적인 불타를 통한 세계의 갱신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리고 13절의 형용사 ‘새로운’(καινούς, καινήν)은 ἐκπύρωσις를 통해 주기적으로 새로워진다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기존 존재가 더 나은 특질로 변혁 및 갱신되는 것을 가리킨다(참고. 사 65:17; 66:22; 계 21:1). 또한 베드로는 6절에서 노아 홍수라는 구약을 사용하기에, 비록 헬라 철학은 터키에 거주한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이 익숙했을 수 있지만, 구약과 유대교 묵시사상의 빛에서 10-12절을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sup>23</sup>

## (2) 11절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진다”에서 ‘이렇게’(οὕτως)는 10절의 불에 타서 풀어지는 방식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Τούτων πάντων)은 10절의 ‘하늘’과 ‘물질’을 가리킨다. 여기서 중요한 의문은 “하늘과 물질이 불에 타서

21 M. Öhler, “Das Bestehen des Kosmos vor dem Hintergrund Frühjüdischer und Frühchristlicher Apokalyptik: Anmerkungen zur Bedeutung des Neuen Testaments für Eine Gegenwärtige Ökotheologie,” *Kerygma und Dogma* 62/1 (2016), 4-9.

22 C. P. Thiede, “A Pagan Reader of 2 Peter: Cosmic Conflagration in 2 Peter 3 and the Octavius of Minucius Felix,” *JSNT* 8/26 (1986), 80.

23 Green, *Jude & 2 Peter*, 330.



풀어져 소멸된다면, 13절의 신천지는 어디로부터 생성되는가?”이다. 그리고 ‘땅’이 불살라질 것은 이미 7절에서 예고되었다. 그렇다면 재림 시에 땅과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사라져버린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서 무엇으로부터 생성되는지 설명할 수 없게 된다.

### (3) 12절

베드로는 10절처럼 12절에서도 예수님의 재림 시에 하늘과 물질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고 언급한다. 여기서도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13절)은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출현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 (4) 13절

13절에서 베드로가 스토아철학보다는 구약을 우선적으로 활용했다면, 이사야 65:17과 66:22의 신천신지와 그 사상을 반영하는 계시록 21:1의 신천신지의 특성을 간본문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sup>24</sup>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대한 증인인 하늘과 땅(사 1:2-3)은 갱신되어 심령에 통회하며 예배하는 남은 자들의 처소가 될 것이다(사 66:1-5, 23). 물론 신천신지가 회복될 예루살렘, 천년왕국, 갱신될 영원한 세상 가운데 어느 것을 가리키는지 의견이 갈리지만, 현 지구의 소멸이나 무로부터(ex nihilo)의 재창조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sup>25</sup> 이와 보조를 맞추어, 요한은 신천신지를 언급한 후(계 21:1), 예수님께서서 만물을 갱신하시는 사역을 현재 진행형(καὶνὰ ποιῶ πάντα)으로 언급한다(계 21:5). 따라서 이사야와 요한은 하늘과 물질 그리고 사람의 소멸이 아닌 갱신으로써 신천신지와 거기에 거주할 사람이 완성될 것을 설명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참고. 빌 3:20-21의 μετασχηματίζω[transform]).<sup>26</sup>

24 Contra 벤후 3장은 의인이 받을 보상을 제외한다면 신천신지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논의를 발전시키지 않으며, 계 21장과 조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B. R. Rossing, “Hastening the Day when the Earth will burn?: Global Warming, Revelation and 2 Peter 3 (Advent 2, Year B),”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35/5 (2008), 367, 369.

25 J. N. Oswalt, 『이사야』, 장세훈·김흥련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7), 918.

26 G. Z. Heide, “What is New about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A Theology of Creation from Revelation 21 and 2 Peter 3,”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이상의 소멸론 논의를 요약하면, 베드로후서 3:10-13은 하늘과 땅과 모든 구성 물질들이 불타서 녹아지고 소멸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소멸론은 심판 때에 사람의 행실들은 불타거나 사라지지 않고, 천지가 전소된다면 질적으로 더 새로운 신천신지가 어디에서 도래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우며, 베드로가 의도한 단회적인 불타를 통한 정화는 스토아학파의 반복적인 대화재 개념과 다르다.<sup>27</sup>

## 2. 세상의 갱신

예수님의 재림 시에 세상이 갱신될 것이라는 논지는 10-13절의 주해로 증명될 수 있는지 절별 주해로 평가해야 한다.

### (1) 10절

베드로후서 3장은 물론, 베드로전서까지 범위를 넓히면 *εὑρίσκω*(발견하다, 어떤 결과로 판명되다)의 의미를 찾는데 베드로후서 3:10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베드로는 *εὑρίσκω*를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점과 흠이 없이 ‘발견되다’ 혹은 ‘드러나다’라는 종말론적 정화와 갱신의 의미로 사용한다(벰후 3:14).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7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ἐν ἀποκαλύψει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의 맥락에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불로써(*διὰ πυρός*) 단련되면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도록 드러나게 될 것(*εὐρεθῆναι εἰς ἔπαινον καὶ δόξαν καὶ τιμὴν*)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sup>28</sup> 따라서 베드로전후서 전체는 재림이라는 미래종말론과 크리스천이 재림의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감싸여진 수미상관구조를 보인다.

스토아학파의 *ἐκπύρωσις*와 다른 차원의 세상의 갱신은 유대문헌에 자주 언급된다(1예녹 10-11; 희년서 1:29; 4에스라 7:75; 바룩 32:6; LAB 32:17).<sup>29</sup>

*Society* 40/1 (1997), 48.

<sup>27</sup> 참고. J. A. Harrill, “Stoic Physics, the Universal Conflagration, and the Eschatological Destruction of the Ignorant and Unstable,” in *Stoicism in Early Christianity*, ed. T. Rasimus et als (Grand Rapids: Baker, 2010), 115-41.

<sup>28</sup> Wolters, “Worldview and Textual Criticism in 2 Peter 3:10,” 411.

<sup>29</sup> 참고. Öhler, “Das Bestehen des Kosmos vor dem Hintergrund Frühjüdischer und

베드로가 구약을 반영하는 이런 유대묵시사상을 활용했다면, 우주의 대화재의 이미지를 통하여 묘사된 불탐은 더러움과 죄의 파괴를 가리키지, 전체 창조세계의 파괴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sup>30</sup> 그렇다면 7절의 ‘땅’이 불살라질 것도 새로운 땅으로의 갱신으로 이해하는 게 자연스럽다.

아래의 도표처럼 10절과 12-13절은 11절을 연결고리로 삼아 병행을 이룬다. 이런 병행 역시 세상의 갱신을 강조한다.

10절	11절a	12-13절
10절a: 주님의 날( <u>ἡ ἡμέρα κυρίου</u> )	이 모든 것들이 풀 어짐( <u>Τούτων πάντων ν λυομένων</u> )	12절a: 하나님의 날( <u>θεοῦ ἡμέρας</u> )
10절b: 하늘이 떠나감( <u>οὐρανοὶ παρελεύσονται</u> )		12절b: 하늘이 불에 타서 풀 어짐( <u>οὐρανοὶ πυρούμενοι λυθή σονται</u> )
10절c: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짐( <u>στοιχεῖα καυσούμενα λυθήσεται</u> )		12절c: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짐( <u>στοιχεῖα καυσούμενα τ ήχεται</u> )
10절d: (파괴되거나 사라지 지 않은)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남( <u>γῆ καὶ τὰ ἐν αὐτῇ ἔργα εὐρεθήσεται</u> )		13절a: 새 하늘과 새 땅의 도 래( <u>καινοὺς οὐρανοὺς καὶ γῆν κ αινὴν</u> )

λύω의 미래 수동태 직설법 동사가 ‘물질’(10절c)과 ‘하늘’(12절b)에 사용되는 데, 연결 고리인 11절에도 λύω의 수동태형이 등장한다. 11절a의 ‘이 모든 것들’은 10절과 12절의 ‘하늘’과 ‘물질’이다.<sup>31</sup> 그런데 위의 표에서 보듯이, 10절과 12절에서 동사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가 병행을 이루는 경우는 두 번이다. (1) 10절b의 하늘이 ‘떠나가다’(παρελεύσονται)와 12절b의 하늘이 ‘풀어지다’(λυθήσονται)

Frühchristlicher Apokalyptik,” 7.

30 J. R. Middleton, 『새 하늘과 새 땅』, 이용중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242.

31 참고. Middleton, 『새 하늘과 새 땅』, 284.

σονται), (2) 10절c의 물질이 ‘풀어지다’(λυθήσεται)와 12절c의 물질이 ‘녹아지다’(τήκεται). 그렇다면 11절a의 ‘이 모든 것들’(Τούτων πάντων) 곧 하늘과 물질이 풀어지는 것(λυομένων)은 떠나가고 녹아진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10-12절의 동사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유익하다. 10절b의 미래 디포넛트 직설법 *παρελεύσονται*의 현재형 *παρέρχομαι*는 ‘지나가다’(pass), ‘능가하다’(surpass), ‘피하다’(escape), ‘사라지다’(disappear), 혹은 ‘들어가다’(enter)라는 의미를 가진다.<sup>32</sup> 베드로전서 4:3의 완료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대격(*παρεληλυθώς*)은 ‘때’(χρόνος)를 수식하여, 과거에 수신자들이 여러 죄악을 저질렀던 지나간 시간을 설명한다. 흥미롭게도 감람산강화는 미래 디포넛트 직설법 *παρελεύσεται*를 통해, 예수님의 영원한 말씀과 대조되는 없어질 하늘과 땅을 은유적으로 언급한다(마 24:35; 막 13:21; 눅 21:33; 참고, 디다케 10:6).<sup>33</sup> 따라서 10절b의 *παρελεύσονται*는 영원한 상태가 아닌 현재의 하늘이 지나가는 것을 가리킨다.<sup>34</sup>

10절c, 11절a, 그리고 12절b의 ‘풀어질 것이다’(λυθήσονται, λυθήσεται, λυομένων)의 능동형 *λύω*의 인도-유럽 어원(*lh, u*)은 ‘자르다’(cut off) 혹은 ‘풀어주다’(release)는 뜻이다.<sup>35</sup> 이 동사의 수동형은 ‘풀어지다’(loosened), ‘파괴되다’(destroyed), ‘끝나다’(finished), 혹은 ‘닳아지다’(worn out), ‘자유하게 되다’(freed)라는 의미이다.<sup>36</sup> 이 수동태 동사들은 사물 전체가 작은 부품으로 ‘해체되다’(dissolved)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한다.<sup>37</sup> 신적수동태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현재의 영원한 상태에 있지 않은 하늘과 물질을 풀어서 해체하실 것이다.<sup>38</sup>

12절c의 ‘녹아지다’(τήκεται)의 능동형 *τήκω*는 ‘녹다’(dissolved), ‘액화되

32 F. Montanari, *The Greek Dictionary of Ancient Greek* (Leiden: Brill, 2015), 1581.

33 J. Schneider, “ἔρχομαι κτλ.,” in G. Kittel ed., *TDNT*, Volume II (Grand Rapids: Eerdmans, 1974), 682.

34 Johnson, *Semantic and Structural Analysis of 2 Peter*, 101.

35 R. Beekes, *Etymological Dictionary of Greek*, Volume 1 (Leiden: Brill, 2009), 881.

36 Montanari, *The Greek Dictionary of Ancient Greek*, 1263.

37 F. Büchsel, “λύω κτλ.,” in G. Kittel ed., *TDNT*, Volume IV (Grand Rapids: Eerdmans, 1975), 336.

38 채영삼, 『베드로후서의 이해: 신적 성품과 거짓 가르침』 (서울: 이레서원, 2017), 455.

다'(liquefied), '불타다'(burnt), 혹은 '파괴되다'(destroyed)라는 의미이다.<sup>39</sup> 수동형은 '녹다'(melted), '약해지다'(festered), '썩다'(rotted), '불타다'(consumed), 또는 '사라지다'(disappeared)와 같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고, 명사형 *τήγμα*는 '사라짐'(fading away)이라는 뜻을 가진다.<sup>40</sup> 신적수동태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태에 있지 않은 물질을 심판의 불로써 녹이셔서 다른 것으로 갱신하여 대체하실 것이라는 뜻이다(참고. 미 1:4; 4:1).<sup>41</sup>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현재의 하늘과 땅과 물질을 영원한 상태로 변형시키실 것을 염두에 두면서, 베드로가 활용하는 본문들에 주목하며 정확한 간본문적 해석을 시도해야 한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활용하는 본문은 구약 선지서나 유대묵시문헌이 아니라 창세기이다. 5절의 창조 사건과 6절의 홍수 사건이 이를 증명하며,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창세기의 천사들의 타락(4절)과 의의 선포자인 노아(5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롯(6-8절)이 언급되었다. 따라서 베드로가 3:10-13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거기의 죄인들에게 임한 불 심판(창 19)을 염두에 두었다면, 10절과 12절의 불타서 풀어질 *στοιχεία*는 창세기 19장과 관련이 없는 하늘의 천체나 천사를 가리키기 어렵다. 그리고 10절과 14절의 *εὐρίσχω*는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임하기 전의 상황을 묘사하는 창세기 18:22-33에 적절하다. 왜냐하면 창세기 18:26-32 LXX는 무려 7회에 걸쳐 *εὐρίσχω*를 사용할 뿐 아니라(창 18:26, 28, 29, 30[x2], 31, 32), 베드로후서 3:13의 의가 거하는 신천지와 14절의 점과 흠이 없는 크리스천의 생활에 비추어 볼 때, 창세기 18-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로운 사람들이 발견되는 여부는 중요 이슈이기 때문이다.<sup>42</sup> 그리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 덕분에 소돔에서 의로운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듯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벰후 3:9; 참고. 벰전 3:20).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도 롯의 사위와 거짓 선생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다가 멸망당하지 말고(창

39 R. Beekes, *Etymological Dictionary of Greek*, Volume 2 (Leiden: Brill, 2009), 1477.

40 Montanari, *The Greek Dictionary of Ancient Greek*, 2111.

41 D. J. Moo, *2 Peter, Jude* (Grand Rapids: Zondervan, 1996), 199, 201.

42 R. P. Juza, "Echoes of Sodom and Gomorrah on the Day of the Lord: Intertextuality and Tradition in 2 Peter 3:7-13,"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24 (2014), 239.

19:14; 벰후 3:5), 점과 흙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εὐρίσχω)를 힘써야 한다(벰후 3:14).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면, εὐρίσχω를 사용하는 베드로전서 1:7도 예수님의 재림 시에 불로 제련되어 정화된 믿음을 가진 수신자들이 칭찬과 영광을 얻게(εὐρίσχω) 할 것이라고 밝힌다. 그렇다면 10절의 불과 εὐρίσχω는 대화재보다는 귀금속의 제련을 염두에 둔 이미지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참고 말 3:2-3; 4:1; 2클레멘트 16:3). 더불어 고린도전서 3:10-15도 중요한 간본문이다. 금, 은, 보석과 같은 공적은 불을 통과하면 정화되어 남아 있어 상을 받지만, 풀이나 짚 같은 공적은 사라지고 만다(고전 3:12-13). 주님의 재림으로 세상에 심판이 임하더라도 의인의 공적은 남게 된다.<sup>43</sup> 이와 유사하게 감람산강화에 따르면, 재림의 주님은 자기 종들이 행한 선한 일들을 보시며(εὐρήσει) 복되다고 인정하실 것이다(마 24:46).

지구 소멸 혹은 갱신을 결정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3:10-13의 문맥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앞 장에서 노아 홍수(2:5)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2:6)이 언급된다. 그렇다면 3장에서 노아 홍수(3:6)가 언급된 후 7절의 ‘불’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자연스럽다.<sup>44</sup> 베드로후서 2:5-6과 3:6-7 사이의 병행은 아래의 도표와 같이 요약된다.

벰후 2:5-6	벰후 3:6-7
κατακλυσμὸν κόσμῳ ἐπάξας (홍수가 세상을 덮음, 2:5)	κόσμος ὕδατι κατακλυσθεὶς ἀπώλετο (세상은 물로 망함, 3:6)
πόλεις Σοδόμων καὶ Γομόρρας τεφρώσας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 재가 됨, 2:6)	οἱ οὐρανοὶ καὶ ἡ γῆ πυρὶ (하늘과 땅은 불살라질 것임, 3:7)

10절의 근접 문맥에 놓인 노아 홍수 사건(벰후 3:6)에서 홍수로 땅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땅 위의 죄인이 심판을 받아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 그러므로

<sup>43</sup> Middleton, 『새 하늘과 새 땅』, 292.

<sup>44</sup> Juza, “Echoes of Sodom and Gomorrah on the Day of the Lord,” 230.

요점은 세상의 소멸이 아니라 죄의 소멸이다.

### (2) 11절

재림을 준비하는 크리스천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εὐσέβεια)은 신적 성품이다(벧전 1:16; 벧후 1:7). 경건한 이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벧전 1:11). 그 나라는 다름 아닌 베드로후서 3:13의 신천신지인데, 재림을 부인하는 불의하고 불경건하여 방탕한 거짓 선생들은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벧후 2:2, 13).

### (3) 12절

앞에서 살핀 대로, 하늘과 지구의 구성 요소인 물질은 불타서 소멸되지 않고 갱신될 것이다. 따라서 하늘과 물질이 불타 소멸되어야 행실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sup>45</sup>

### (4) 13절

‘의’(δικαιοσύνη)가 거하는(κατοικεῖ) 신천신지의 관련 본문인 이사야 65-66장 그리고 계시록 21장도 세상의 갱신을 지지한다. 흥미롭게도 ‘의인’(δίκαιος)은 불경건한 자들이 거주했던(κατοικοῦντας, 창 19:25) 소돔과 고모라가 파멸되기 이전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사람으로 무려 8회나 등장한다(창 18:23[x2], 24[x2], 25[x2], 26, 28).<sup>46</sup> 신천신지는 의인이 거의 거주하지 않았던 소돔과 고모라와 대조된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염두에 둔 베드로의 신천신지에 대한 설명은 바울신학과도 일맥상통한다. 바울은 사람의 장막 육신이 무너지는 죽음 이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처소 곧 부활의 몸을 덧입으므로(ἐπενδύσασθαι) 나체로 드러나지(εὐρεθησόμεθα) 앓을 것을 소망한다(고후 5:2-3; 참고. 계 16:15; 바나바서신 21:6; 2클레멘트 16:3).<sup>47</sup> 여기서 ‘덧입다’(ἐπενδύω)는 ‘추가로 입다’(put on in addition)는 의미인데,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sup>45</sup> Contra Juza, “Echoes of Sodom and Gomorrah on the Day of the Lord,” 245.

<sup>46</sup> Juza, “Echoes of Sodom and Gomorrah on the Day of the Lord,” 243.

<sup>47</sup> Wenham, “Being ‘found’ on the Last Day,” 478.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 간에 몸으로 행한 일들에 따라 보응을 받고(고후 5:10), 기존의 육신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신천신지에서 살 것이다. 바울처럼 베드로도 장막 육신을 벗는 죽음과 예수님께서서 능력으로 강림하심을 연결하여 논의한바 있다(베폰후 1:14, 16).

이상의 갱신론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면, 재림 시에 하늘과 땅과 물질은 불에 타고 풀어질 것인데, 그것은 천지의 갱신이다.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 곧 사람들이 행한 일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드러날 것이다. 또한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거룩과 경건이라는 신적 성품에 참여한 이들은 의로운 신천신지에서 살게 될 것이다.

### 3. 소결론

심판을 강조하는 지구의 소멸론과 심판을 통한 회복을 강조하는 갱신론 모두 미래 종말론적 주제인데, 어떤 이론을 따르는가는 크리스천의 현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구가 아닌 다른 장소에 신천신지가 임한다고 믿는 소멸론자는 크리스천의 환경보호 책무를 굳이 강조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갱신론자들은 세상 갱신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신천신지를 앞당겨 누리기 위해 환경 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고 시도한다. 크리스천이 현재 지구와 갱신된 지구 사이의 연속성을 수용하는 것은 재림을 통한 심판 그리고 기존 창조와 새 창조 사이의 불연속성을 수용하는 것과 충돌하지 않는다.<sup>48</sup>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새 창조는 새 창조의 완성을 향하여 긴장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이다. 아래의 도표에서 보듯이, 이런 진행 과정은 베드로후서 3장의 세 가지 세계가 완성을 향하여 전개되는 방식이 지지한다.<sup>49</sup>

48 De Wit, "Christ-Centred Ethical Behaviour and Ecological Crisis," 6.

49 Wolters, "Worldview and Textual Criticism in 2 Peter 3:10," 411-12.



하늘과 땅(세계)의 종류	정화 및 갱신의 수단과 결과
첫 번째 세계: 홍수 이전의 하늘과 땅(5-6절)	홍수(6절): 불경건한 자들의 파멸과 거룩하고 경건한 의인들의 구원(2:5; 3:10)
두 번째 세계: 홍수 이후의 갱신되었지만 불사름을 기다리는 하늘과 땅(7절)	불(7, 10-12절): 주님의 재림을 경건하게 준비하는 의인들이 영원히 거주할 장소 <sup>50</sup>
세 번째 세계: 새 하늘과 새 땅(13절)	영원한 상태를 유지(1:11)

위의 표에서 보듯이, 베드로는 스토아학파의 *ἐκπύρωσις*에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이 어떤 급변을 겪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도 배격한다.

## V. 베드로후서의 기록 목적과 세상의 변화에 비추어 본 크리스천의 환경에 대한 책무

위에서 살핀 대로, 본문비평과 담론분석 그리고 3:10-13의 주해는 세상 갱신을 지지한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 때 발생할 세상의 완전한 갱신이라는 변화는 오늘날 크리스천의 환경에 대한 책무 곧 환경 윤리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고찰해야 한다.

먼저 베드로후서의 기록목적에서 본 크리스천의 환경 책무를 살펴야 한다.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을 미혹한 거짓 선생들은 재림을 부인함으로써, 세상이 영원히 존속된다고 주장하며 부도덕하게 살았다(벧후 2:1-2; 3:4). 따라서 거짓 선생들의 주장은 지구 소멸론 혹은 갱신론과 무관하다. 베드로후서는 생태계 위기라는 상황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삼지 않고, 도덕폐기를 주장하며 재림을 부정하는 거짓 선생들의 위협을 배경으로 한다. 베드로는 수신자들이 거짓 선생

50 벧전 4:12의 불같은 시험은 4:17의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정화시킨다. 이런 불을 통한 정화 사상은 야금술(metallurgy)의 이미지인데, 구약 선지자들은 물론 베드로와 요한도 활용했다(스 13:9; 말 3:2-4; 벧전 1:7; 계 1:15). A. L. Wolters, "Worldview and Textual Criticism in 2 Peter 3:10,"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9 (1987), 409, 413.

들에 맞서도록 무엇보다 8가지 ‘신적 성품’(θείας φύσις, 벵후 1:4)에 최선을 다해 참여할 것을 제시한다(벵후 1:4-7). 그렇다면 베드로후서의 핵심 개념인 신적 성품과 크리스천의 환경 책무의 관련성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신적 성품은 베드로후서 3장에 나타난 새 창조의 종말론이라는 내러티브가 형성하는 크리스천의 환경 덕 윤리(ecological virtue ethics)와 어떻게 맞물리는가?<sup>51</sup> 베드로후서 3:8-13은 하나님의 두 성품인 ‘자비’(회개와 구원)와 ‘정의’(심판)를 강조하기에, 신적 성품(1:4-7)과 분명한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이상의 총 10가지 신적 성품을 다음과 같이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sup>52</sup>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갱신하실 세상과 환경에 대한 크리스천의 ‘신실함’, 환경을 배려하는 ‘덕’,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 환경 개발에 대한 ‘절제’, 주님의 재림을 ‘인내’하면서 ‘경건’한 청지기로서 환경을 ‘사랑’하며 돌보아야 한다.

여기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편지를 쓸 때도 생태계가 탄식할 정도로 오염되었는가?”이다(참고. 롬 8:19-21).<sup>53</sup> AD 1세기경 상아를 좋아했던 로마황제 때문에 아프리카의 코끼리가 멸종 위기에 처한 적은 있었다. 팍스 로마나 선전과 로마제국의 야망과 군사 정복으로 인해,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경제적 약탈을 당했고, 정복당한 도시는 폐허로 방치되고, 산의 숲은 잘려나갔고, 강은 오염되었고, 들은 황폐화되었다.<sup>54</sup> 베드로와 베드로후서의 독자는 황제가 약속한 신천신지에 대한 선전도 알고 있었다. BC 17년에 아우구스투스는 변영의 새 시대의 탄생을 홍보했으며, 이에 맞춰 버질(BC 70-19)은 인간의 불경건함이나 사악함이 더 이상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강변하면서 아우구스투스의 황금시대를 칭송했다.<sup>55</sup> 로마제국의 프리네(Priene)에서 발굴된 비문에 의하면, 아우구스투스

51 S. Bouma-Prediger, “Eschatology shapes Ethics: New Creation and Christian Ecological Virtue Ethics,” *Canadian Theological Review* 2/2 (2013), 18-28.

52 Neyrey, *Jude*, 241; 채영삼, 『베드로후서의 이해: 신적 성품과 거짓 가르침』, 74.

53 롬 8:22-24에 따르면, 피조물은 소멸과 파괴와 사라짐을 위해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속의 소망을 기대한다.

54 R. Jewett, *Roman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07), 513.

55 참고. R. N. Longenecker, *Rom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16), 724.

는 썩어짐으로부터 이미 이 세상을 자유케 했다.<sup>56</sup> 시쿨루스(Calpurnius Siculus)는 네로가 이룬 황금시대를 찬양했고, ‘평화의 제단’에 새겨진 지구의 여신 텔루스(Tellus) 상(像)은 풍요로운 소출과 가정의 평안과 동물 세계의 안식을 선전했다.<sup>57</sup> 그러나 평화롭고 풍성한 새 세상이라는 제국의 선전 구호는 군사 정복으로는 불가능하다. 환경 문제는 베드로후서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서신의 일차 독자들과 무관하지도 않았다.

베드로후서 3:10-13에서 도출한 세상의 변화에 비추어 본 크리스천의 환경 책무는 무엇인가? 세상의 갱신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베드로후서 3장은 물론, 구약과 신약의 지지를 받는다(사 65:17; 66:22; 마 19:28; 행 3:21; 계 21:1, 5).<sup>58</sup> 그렇다면 세상의 갱신이라는 종말론을 따르는 크리스천의 환경 책무는 무엇인가? 주님의 재림 시에 지구는 완전히 갱신되기에, 사람의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갱신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세상 갱신 사역에 동참하면서 환경의 청지기로서 보호하고 갱신을 돕는 것은 크리스천의 마땅한 책무이다. 그리스도인이 신천신지를 대망하는 종말론적 삶은 환경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동인(動因)이다.<sup>59</sup>

## VI. 나오면서

56 F. Thielman, *Romans*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8), 404.

57 로마제국은 ‘덕의 원천’(fountainhead of virtues)이라고 선전되었지만(스트라보, *Geographica* 6.4.2), 베드로에게 그 제국은 악과 파괴의 근원에 지나지 않는다(참고: 시빌린 신탁 5.386). Thielman, *Romans*, 400-402.

58 자세한 논의는 D. J. Harrington, *Jude and 2 Peter* (Sacra Pagina;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8), 292-94를 보라.

59 E. Adams, “Does Waiting for ‘New Heavens and a New Earth’ (2 Pet. 3.13) mean Abandoning the Environment?” *Expository Times* 121 (2010), 168-75. 참고로 그리스도인이 생태계 보존과 같은 문화명령을 수행할 때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와 분리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은 김재운,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문화: 끝라스 스킨더와 디트리히 본회퍼를 중심으로,” 『갱신과 부흥』 26 (2020), 290을 보라.

오늘 날 환경 위기에 대처하려면 무엇보다 성경의 내러티브와 신학을 따라 올바른 종말론을 정립하고, 환경 덕 윤리를 확립해야 한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면 죄인은 물론 환경의 구원을 위한 기회가 연장된다. 이 연장되는 기간 동안 크리스천이 환경 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베드로가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세상을 갱신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여 신천신지를 선취(foreshadow)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현대판 거짓 선생들에 맞서는 일이기도 하다. 앞으로 사본학, 성경주해, 종말론, 생태학, 그리고 윤리학이 어우러진 통전적이며 간학문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소망한다.

## [참고문헌]

- Adams, E. "Does Waiting for 'New Heavens and a New Earth' (2 Pet. 3.13) mean Abandoning the Environment?" *Expository Times* 121 (2010), 168-75.
- Beekes, R. *Etymological Dictionary of Greek*. Volume 1, 2. Leiden: Brill, 2009.
- Bouma-Prediger, S. "Eschatology shapes Ethics: New Creation and Christian Ecological Virtue Ethics." *Canadian Theological Review* 2/2 (2013), 15-32.
- Büchsel, F. "λύω κτλ." In G. Kittel ed. *TDNT*. Volume IV. Grand Rapids: Eerdmans, 1975, 328-56.
- Conradie, E. M. "Contemporary Challenges to Christian Ecotheology: Some Reflections on the State of the Debate after Five Decades." *Journal of Theology for Southern Africa* 147 (2013), 106-123.
- Danker, F. W. "2 Peter 3:10 and Psalm of Solomon 17:10." *Zeitschrift für die neutestamentliche Wissenschaft und die Kunde der älteren Kirche* 53/1-2 (1962), 82-86.
- Davids, P. H. *II Peter and Jude: An Handbook on the Greek Text*.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1.
- De Wit, M. P. "Christ-Centred Ethical Behaviour and Ecological Crisis: What Resources do the Concepts of Order in Creation and Eschatological Hope offer?" *Koers* 78/1 (2013), 1-8.
- Elliott, J. K. "The Petrine Epistles in the 'Editio Critica Major'." *Novum Testamentum* 42 (2000), 328-39.
- Green, J. B. *Jude & 2 Peter*. BECNT. Grand Rapids: Baker, 2008.
- Harrill, J. A. "Stoic Physics, the Universal Conflagration, and the Eschatological Destruction of the Ignorant and Unstable." In *Stoicism in Early Christianity*. Edited by T. Rasimus et als. Grand Rapids: Baker, 2010, 115-41.

- Harrington, D. J. *Jude and 2 Peter*. Sacra Pagina.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8.
- Heide, G. Z. "What is New about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A Theology of Creation from Revelation 21 and 2 Peter 3."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40/1 (1997), 37-56.
- Jewett, R. *Roman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07.
- Johnson, E. *A Semantic and Structural Analysis of 2 Peter*. Dallas: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1988.
- Juza, R. P. "Echoes of Sodom and Gomorrah on the Day of the Lord: Intertextuality and Tradition in 2 Peter 3:7-13."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24 (2014), 227-45.
- Longenecker, R. N. *Rom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16.
- Louw, J. P. "Discourse Analysis and the Greek New Testament." *Bible Translator* 24 (1973), 101-118.
- Metzger, B. M.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Second Edition. New York: UBS, 2001.
- Middleton, J. R. 『새 하늘과 새 땅』. 이용중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 Montanari, F. *The Greek Dictionary of Ancient Greek*. Leiden: Brill, 2015.
- Moo, D. J. *2 Peter, Jude*. Grand Rapids: Zondervan, 1996.
- Mutel, C. F. "COVID-19: Dress Rehearsal for a Climate in Crisis."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47/3 (2020), 35-41.
- Neyrey, J. H. *Jude*. Anchor Bib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 Öhler, M. "Das Bestehen des Kosmos vor dem Hintergrund Frühjüdischer und Frühchristlicher Apokalyptik: Anmerkungen zur Bedeutung des Neuen Testaments für Eine Gegenwärtige Ökotheologie." *Kerygma und Dogma* 62/1 (2016), 3-26.
- Oswalt, J. N. 『이사야』. 장세훈·김홍련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7.
- Rossing, B. R. "Hastening the Day when the Earth will burn?: Global

- Warming, Revelation and 2 Peter 3 (Advent 2, Year B).”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35/5 (2008), 363-73.
- Schneider, J. “ἔρχομαι κτλ.” In G. Kittel ed. *TDNT*. Volume II. Grand Rapids: Eerdmans, 1974, 666-84.
- Thiede, C. P. “A Pagan Reader of 2 Peter: Cosmic Conflagration in 2 Peter 3 and the Octavius of Minucius Felix.” *JSNT* 8/26 (1986), 79-96.
- Thielman, F. *Romans*.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8.
- Van den Heever, G. “In Purifying Fire: World View and 2 Peter 3:10.” *Neotestamentica* 27/1 (1993), 107-118.
- Wasserman, T. and Gurry, P. J. *A New Approach to Textual Criticism: An Introduction to the Coherence-Based Genealogical Method*. Atlanta: SBL Press, 2017.
- Wenham, D. “Being ‘found’ on the Last Day: New Light on 2 Peter 3:10 and 2 Corinthians 5:3.” *New Testament Studies* 33/3 (1987), 477-79.
- Wolters, A. L. “Worldview and Textual Criticism in 2 Peter 3:10.”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9 (1987), 405-413.
- 김재윤.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문화: 플라스 스킨더와 디트리히 본회퍼를 중심으로.” 「갱신과 부흥」 26 (2020), 265-94.
- 고영렬. “네스틀레 알란트(Nestle-Aland) 28판의 이론적 배경과 평가.” 「신약논단」 22/2 (2015), 253-82.
- 김주한. “NA28판에 대한 비평적 고찰: 공동서신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80 (2016), 248-309.
- 채영삼. 『베드로후서의 이해: 신적 성품과 거짓 가르침』. 서울: 이레서원, 2017.

**[Abstract]****Eschatology and Christian's Eco-Responsibility Focused  
on 2 Peter 3:10-13**

Young Mog Song

(Kosin University, Professor, New Testament Theology)

The environmental condition has rapidly been worsening. This phenomenon has resulted in diverse researches on eco-theology including pneumatological eco-theology, eschatological eco-theology, eco-feminism, and eco-justice. The eschatology of the investigator affects the way and result of the research. Keeping this in mind the present researcher delves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eschatology and Christians' eco-responsibility by interpreting 2 Peter 3:10-13. To this end, the following four steps are utilized: (1) textual criticism of 2 Peter 3:10 by analyzing six textual variants; (2) discourse analysis of 2 Peter 3, (3) exegesis of 2 Peter 3:10-13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world annihilation and world re-creation, and (4) understanding the eco-responsibility of Christians who are waiting for the second coming of Christ in terms of the purpose of 2 Peter and of the re-creation of the world. Christians have to be coworkers of the renewing work of Christ by participating in the divine characteristics. By integrating the eschatology of 2 Peter and Christians' environmental responsibilities, this study is to provide insights into what individual Christians as well as local churches should stand and practice with respect to the environment.

**Key Words:** 2 Peter 3, textual criticism, discourse analysis, environmental crisis, eschatology, Christian's eco-responsibility